

 TACSS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 도 자 료		튼튼한 공제 신뢰받는 보상서비스	
		배포일시	2022. 11. 28(월) / 총 5매(본문3)		
담당 부서	전략사업부	담 당 자	• 총괄본부장 김성완, 전략사업부장 백재환 • ☎ (02) 6101-1605, 1614		
보 도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배포 즉시 보도 가능			

주현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2022 TV조선 경영대상” 리더십경영 부문 대상 수상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은 주현종 원장이 25일 ‘더 플라자호텔 서울’에서 TV조선이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하는 ‘2022 TV조선 경영대상’에서 「리더십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 올해 9회를 맞이한 ‘2022 TV조선 경영대상’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총체적인 경영혁신을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점하고, 더불어 고객과 국민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영자의 성과와 업적을 알려 우리나라 기업경영의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학계와 언론계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 이번 경영대상 선정식은 급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세 속에서 산업 트렌드 변화와 방향을 제시해 줄 경영전략을 갖춘 기업과 기관 그리고 경영인을 선정하고,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리더십과 경영전략이 무엇인지 공유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주원장은 경영대상(리더십 경영부문)과 보건복지부 장관상(사회공헌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주현중 원장은 29년간 국토교통부에 몸담았으며, 도로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건설교통 전문가로서 자동차사고 피해자보호를 위한 지원제도 연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자 수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선제적 안내를 위한 제도개선 등 주요 자동차손해배상 정책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자배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8년 9월 설립되었으며 사업용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및 자동차공제조합 업무 개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자배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민원처리 실태점검에서 2회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 내었으며 특히, 자동차공제 사고 피해자들이 고질적 문제로 호소하는 운수업체의 접수거부 민원 해결을 위해 자배원 내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자배원은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사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매월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조정함은 물론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자동차공제조합 사이의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후유장해율 등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정하고 중립성이 있는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의료전문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또한, 자배원은 나날이 지능화되어가는 보험사기 대응에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자배원에서 공제조합 보험사기 조사 업무 지원을 시작한 첫해 실적은 36억원에 불과했으나, 최근 약 89억원으로 25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보험사기 조사기법 교육, 보험사기 공동조사 참여, 공제조합 보험사기 전담인력 배치'등 적극적인 정책들을 추진한 결과이다.

- 마지막으로 자배원에서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무보험·뺑소니·낙하물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력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23년 1월부터 현재 10개 손해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있는 정부보장사업 보상 업무를 직접 수행할 계획에 있다.

□ 자배원 주현종 원장은 “국민과 사회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상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는 언론사인 TV조선으로부터 이러한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업무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함께 고민한 자배원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전문적인 자동차공제사업의 발전과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개선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자배원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